

충장중 학부모 동아리 샌드위치 나누기 행사

혁신교육부 주관 중간고사응원 행사 진행



2018 빛고을혁신학교로 지정된 광주충장중학교(교장 정길분)가 혁신교육부 주관으로 지난 1일 학부모동아리 중간고사응원 사랑의 샌드위치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

매월 셋째 주 목요일 독서토론 활동을 진행 중인 학부모동아리(충장책사랑나누리) 회원 15명은 체험활동의 일환으로 최수옥 강

사로부터 훌메이킹 샌드위치 만들기를 직접 배운 후, 2시간에 걸쳐 정성스럽게 만든 샌드위치를 교실로 찾아가 전교생(214명)에게 전달했다. 청단종합운동장 야구장으로 훈련을 나간 야구부 학생들을 위해서는 학교장이 직접 찾아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함께 한 최수옥 강사는 현재 EBS 잡스클 푸드스타일리스트 진

로체험 강사로 2017년부터 현재 까지 한국소아암협회망다미 웰니스협회 센터장을 역임 중이며 암 치료 환자들을 대상으로 아동코강교실을 운영하며 재능기부를 하고 있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광주충장중 교장은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시립과 정성으로 샌드위치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우리 학생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오히려 교사들이 응원을 받는 기분이다”며 학부모 동아리 회원들과 동아리 운영 교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총 2시간가량에 걸친 이번 행사는 학부모들도 요리와 나눔을 통해 성취감과 기쁨을 느끼는 계기였으며 학생들도 학교생활의 즐거움을 느끼고, 시험에 대한 격려와 응원을 받는 계기였다. 2018 빛고을혁신학교의 첫걸음을 맨 광주충장중학교의 향후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조인호 기자

영광군 홀로 사는 어르신, 카네이션 달고 웃음꽃 만개

독거노인 1,373세대 어르신 효사랑 카네이션 전달



이선을 달아드리며 어버이날을 기념했다. 따뜻한 손길을 그리워하면서 어르신들은 방문을 반기우며 기쁨에 단 카네이션에 웃음꽃을 만끽하며 연신 감사함을 전했다.

영광읍에서 홀로 거주하고 계시는 박 모(87세) 할머니는 카네이션을 기쁨에 달고 험박웃음을 보이시며 “평소 전화해 주고 찾아와서 말동무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어버이날이라고 꽃도 가져다주고 너무 감사하고 자녀가 방문한 것처럼 기쁘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영광군은 제46회 어버이날을 맞아 독거노인 1,373세대를 방문해 어르신께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카네이션을 전달했다.

영광군에서는 가족과 떨어져 홀로 지내는 어르신 1,373세대를 직접 방문해 건강과 안부를 살피고, 카네

한편, 군에서는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의 안전과 정서적 지원을 위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및 응급안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전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10여 종의 다양한 취미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시니어 교실을 옵·면 경로당에서 운영하고 있다.

영광=서희권 기자



광주전남병무청장, 31사단장과 간담회 실시

황영석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은 3일 31사단장을 방문하여 권사 사단장과 현역 병 및 보충역 입영, 입영문화제 개최, 병역 명문가 인오전학, 예비군 동원훈련 등 병무행정 현안사항 협조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보성 벌교파출소, 협력단체와 협동순찰 실시

보성경찰서 벌교파출소(소장 김충식)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4일 벌교초등학교 녹생어민나희 회원 20여명과 함께 청소년 유해업소 주변을 협동순찰 하였다.

보성=안구일 기자



순천교육지원청, 학교도서관 학부모봉사자 연수

순천교육지원청(교장 윤종식)은 최근 순천 지역 초·중·고 학교도서관 학부모봉사자 80여명을 대상으로 ‘2018 학교도서관 학부모봉사자 연수’를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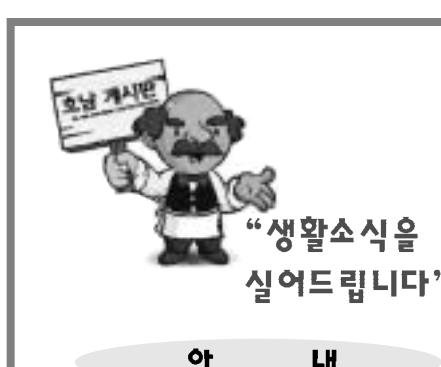
순천=김승호 기자



영암소방서, 모터뮤직페스티 안전체험장 운영

영암소방서는 5~6일 이틀간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열린 ‘2018 모터뮤직페스티’ 행사장에서 생활 속 재난·재해 발생 시 행동 요령을 배우고 체험을 할 수 있는 119안전체험장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 기자



안내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전남상 담소 (061)792-0362 한국노총 순천 노동상담소 (061-721-7363)한국노총 여성 상담소 (062-685-5293)

▲호남해바라기아동센터 시스 템 무상제공= 13세 이동 및 젊은 지체 장애인 대상 긴급구조, 상담, 의료, 심리치료(062-232-1375)

▲생활상담 연구원 무료 방문, 전화, 온라인 상담=개인, 주부, 가족폭력, 성, 청소년 고민 등(062-363-5599)

▲알코올상담 서비스 실시=인 광알코올상담센터 무료 알코올상 담=술로인해 고통받는 사람 상담 및 교육 정보제공(222-5666)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 사 무소 인권상담=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일반전화 국번없이 1331, 전화 062-1331)

▲월 연탄 100장 기증 회원·연 탄배달 회원(연10회)=1년 내내 자동이체 후원자·전남 거주자, 광주장애인사랑봉사회 연탄 100장 으로 봉사 광주본부(522-8909)

▲찾아가는 장애인생활체육서 비스 장애인 체육 동호회 및 선수 를 를 모집 광주광역시장애인 체 유회 상담전화(1577-7976)

▲빛고을 한사랑 회원모집=영 어원 및 지체장애인시설 봉사에 뜻이 있는 20세 이상 남녀 (010-9974-9390, 문자환영)

▲제주 특별자치도민회원 모집=광주전남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제주출신 환영합니다. 문의(062-374-5885, 010-2444-4500)

▲남녀 배우회원 수시모집=수 시(매주 월, 수, 금, 토요일) 광주 북구 일곡동 일동중 학교 문의(010-612-2112)

▲영상과 브레이인 회원 모집=시

나리오(8mm) 스타터그룹, 옵저버, 드리미(구성작가) 등 공동창작활 동 관심있는 사람, 20~30대 응모 가능, 40대는 경력자

▲빛고을 한사랑 회원모집=영 어원 및 지체장애인시설 봉사에 뜻이 있는 20세 이상 남녀 (010-9974-9390, 문자환영)

▲제주 특별자치도민회원 모집=광주전남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제주출신 환영합니다. 문의(062-374-5885, 010-2444-4500)

▲평동지역아동센터(공부방) 직 원·자원봉사자 모집=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미술·만들기 등 예능에 소질이 있는 분, 문의 062-363-5599

▲푸른복지문화센터회원=댄스 스포츠 월트, 팝 062-531-1769

▲광주지방보훈청 제대군인자 원센터=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소송 분쟁시 비용 지원(132, 1577-8339)

▲광주·전남 MC룸바 회원 모집=룸바 배우실 분(010-4624-8787)

▲신용사회만들기 시민연합 무료 체무상담=많은 체무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나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체무상담 매주 월~금 오후 5시. (062-226-9001~2)

▲종합민요시랑모임 회원=민요 를 사랑하며 사회봉사에 뜻이 있는 45세 이상 남녀(010-601-6989)

▲신용사회만들기 무료 체무상담 =월~금 오후 5시 (062-226-9001~2)

▲푸른복지문화센터회원=댄스 스포츠 월트, 팝 062-531-1769

작되는 상투적인 가사가 아니다. 행진곡풍에 감미로운 멜로디의 조합이 대박이다.

개교기념일도 1일 근로자의 날이 된다. 그동안 관 주도하에 결정된 개교기념일은 신대조는 학교의 주인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았다. 함께 만드는 행복한 변화요. 혁신이다.

임종윤 교장은 개교식에서 교가의 후렴구를 인용 “그대 신대의 자랑이듯 신대 그대의 자랑이 되라”고 힘주어 말했다.

순천교육지원청 윤종식 교육장은 격려사에서 “행복을 꿈꾸고 희망을 실천하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되기를… 그리하여 전국의 최고 명품학교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 기자

순천신대초교, 힘찬 걸음을 내딛다



16학급으로 출발 하지만 예상 완성학급이 58학급 대규모 학교에서 우려스럽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작은 초미니 운동장이 더욱 양증 스러운 이유이다. 교기 전달식이

이색적이다. 교기는 일반적으로 해당 학교장에게 전달하지만 이 학교에서는 학교의 주인인 학생 대표에게 직접 전달됐다.

교가 또한 이제롭고 신선하다.

“사랑해 친구야 우리가 희망이야”로 시작되는 가사가 학생스럽다. 100산

과 00강의 정기를 이어 받아로 시

장흥군 장동면, 어버이날 맞아 카네이션·효도밥상 선물

새마을 부녀회 주관 수선당·남성당 등 경로당 어르신 대상



이날 행사는 장동면 새마을 부녀회 주관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앞서 새마을 부녀회(회장 이순기) 회원 30명은 오전부터 대표 경로당 2곳을 구석 구석 꺼끌히 청소 했다.

장동면 직원들과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은 미루 어르신들에게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 드리고 ‘부모님 은혜’ 노래 합창 및 직접 마련한

음식으로 건강한 효도밥상을 대접했다.

김만재 경로당장은 “형식적인 카네이션 전달이 아니라, 경로당 대청소 및 정성껏 마련한 음식, 장수기원 등 경로당 어른들은 충분히 행복한 하루를 보낸 것 같다”면서 “이런 세심한 배려를 해준 장동면과 새마을부녀회에 감사하다”는 소감을 전했다.

김광재 장동면장은 “그동안 어르신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애써주신 것에 대해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준비한 자리며, 어버이날을 맞아 건강과 장수를 기원한다”는 말을 전했다.

장흥=김홍필 기자

화순기자협회, 꾸준한 나눔 기부활동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2년 연속 라면 400봉 후원



(매년 4월 20일)을 맞이하여 우리 지역 장애우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회원들의 뜻을 한데 모아 추진되었으며, 협회는 이번 기탁 이외에도 하늘사랑 장애인 주간센터에 2회에 걸쳐 삼을 기탁하였다.

협회는 지난 2016년 6월에 개최된 화순군인돌시장 아시장 노래자랑에 금일봉 후원을 시작하면서, 혹서기 더위에 노출된 독거노인을 위해 ‘선풍기’를 후원하는 등 매년 2~3회에 걸쳐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최재승 회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생활하며,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애쓰면서 봉사하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작지만 회원들의 정성을 모아 준비했다”고 밝혔으며, 우리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연합회를 비롯한 주변 장애우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였다.

화순=박순철 기자

다. 특히 기자협회 부회장 이교철(화순청년연합회 회장 겸임)은 정신 지체장애인의 후원회장을 맡아 돋고 있으며, 화순지체장애인을 위해 ‘소록도 한센병원’을 견학시키는 등 언론인으로서 사회의 모범을 보이자 노력하고 있다.

최재승 회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생활하며,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애쓰면서 봉사하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작지만 회원들의 정성을 모아 준비했다”고 밝혔으며, 우리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연합회를 비롯한 주변 장애우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였다.

화순=박순철 기자

